

골절환자의 지지간호에 관한 사례연구*

김 숙 희

(간호사, 방송대 간호학전공 4학년)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재해, 교통사고, 운동외상,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골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다루는 것은 오늘날 전문적 간호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종래의 간호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간호에 치중 되었으나 근래에는 심리적 간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하던 개인이 신체적 외상인 골절상태가 되었다는 현실은 장애에 대한 불안, 자가불행감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체 부자유로 인한 초조감과 육구불만 등은 건강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상태이므로 일상간호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먼저 환자의 여러가지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여야만 비로소 폭넓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 심리적 문제 해결은 지지적 간호를 제공하므로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골절로 입원한 환자간호에 오랜 기간 임하면서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간호문제가 많음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투약이나 활력징후

의 측정 등에 대한 거부나 불이행 등이 많음을 보아왔다. 이러한 환자에게 간호사의 지지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였는데, 골절환자에게 시도하는 지지적 간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지지적 집단간호가 하지골절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추자, 1985)'만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지적 집단간호가 하지 골절환자의 신체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의하게 작용하였음을 밝혀낸 연구이며, 골절환자의 개인적인 지지간호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Norbeck(1982)은 환자에게 필요한 지지는 간호사가 직접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고, LaRocco, House, Freeh(1980)는 다른 어떤 지지원으로부터 제공된 지지보다 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지원에 의해 제공받는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입원환자에게는 그를 간호해 주는 전문적 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받는 지지가 가장 유효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김정아, 1989).

이에 본 연구자는 입상에서 골절환자를 간호하면서 신체적인 간호보다는 심리적인 간호가 더욱 필요함을 체험하고, 심리적인 간호중재로

* 본 연구는 한국방송대학교 학사학위논문(지도교수 이선옥)임

서의 지지간호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이 형식없이 실시하고 있는 지지간호에 형태를 정의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며, 관련변인의 탐색을 통하여 골절환자의 지지간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II. 문헌고찰

1. 골절 환자의 사회심리적·정서적 문제

정형외과에 입원한 골절환자의 공통된 심리상태로는 우선 신체의 일부분의 장애나 변형에 대한 열등의식, 의존심, 적응성과 사회성의 결여, 편집성향 등이 있다. 판에 박힌 생활 환경, 과보호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소외감 등 여러 가지가 그 원인이 되며, 주변사람들의 장애자에 대한 태도도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질병의 상태가 만성화됨에 따라 점점 의존성은 강해지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욕구 불만을 주변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투사하는 일을 자주 경험한다. 또한 가동성 제한의 반응으로 질병으로의 도피, 부정, 자기증식적 행동, 자가현시욕 등이 강하게 나타나며, 다른 사람의 주위를 집중하고 싶어하는 히스테리 기재를 이용하여 특히 어린이와 같은 미숙한 태도나 퇴행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외관상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장애자의 마음은 결코 건강인이 생각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번민으로 차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같은 심리상태에서 어떻게 건전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욕과 동기를 갖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 간호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골절환자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정시키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침상에 누워있거나 목발이나 wheel chair를 이용하게 수동적으로 활동을 해야한다. 장기적인 고정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조명옥, 1985). 장기적인 고정은 자기보존에 위협을 주고 갈등, 공격심을 유발시키며 운동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제한하므로 좌절을 느끼게 한다. 또한 감각박탈을 일으켜 인간에게 유용한 감각정보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므로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저하시킨다. 질병으로 인한 불

구상태나 신체모습의 변화를 당하게 되면 정서적인 충격을 받게되고 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형태의 제약을 받으므로 성격이 역행되고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퇴행하여 인성의 변화도 초래한다(이은옥, 1982).

2. 지지간호에 관한 선행연구

이와 같이 골절환자의 신체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심리적 문제에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지지적 간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지적 간호는 간호사와 환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호과정으로서 간호사는 환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청과 감정이입에 의한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건강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신체적 보살핌을 제공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이다(김정아, 1989).

지지간호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정추자(1985)는 하지골절 환자의 신체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의하게 작용하였음을 말하였고 지지적 집단간호방법을 이용하여 신체상의 손상을 가져온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그 효과의 타당성을 재확인해 볼 필요와 지지적 간호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를 제안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지지간호가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김명자, 1985)'는 지지간호의 스트레스 경감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지지간호가 균 요통환자의 우울, 기분, 만족에 미치는 영향(김정아, 1989)'은 지지간호는 상호관계에 의한 경험, 감정이입, 정보제공으로서 원초적 지지원이 없는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우울이 심하고, 기분이 침체되어 있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요통환자에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 자신감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영자(1994)는 지지간호가 자궁암 환자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임을 재입증했다. 김정아(1989)도 반복연구와 지지간호의 추후 장기간 지속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실험장소를 임상현장인 개방병동으로 바꾸어 개별적인 지지간호를 실시하여 실용적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지지적 간호행위가 혈액투석 환자의 대처방식에 따라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숙자, 1992)은 만성질환자인 혈액투석환자의 우울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방식을 매개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지지간호가 환자의 우울, 문제해결능력, 긍정적인 신체상, 삶의 질, 스트레스의 경감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ABA설계로 골절환자의 지지간호 중재의 개입전후 상황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9일 동안이었다. 기초 관찰시기는 12~14일의 3일, 지지간호의 중재시기는 15~17일의 3일, 제 2기 초 관찰시기는 18~19일의 3일로 하였으며 일일 1회의 관찰을 통하여 변인을 측정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6년 8월 12일 부터 8월 20일까지 9일 동안 서울시내 모 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있는 골절환자중 응급치료를 요하지 않는 장기입원 환자중 5명을 선정하였다.

3. 연구변인

지지 간호 :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는데, 환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청과 정서적 지지를 주고 건강에 관 정보와 보살핌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투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설명, 약의 효과에 관한 설명, 운동의 중요성, 근육 강화 운동, ROM exercise, 목발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운동하는 것을 격려하며 함께 운동을 하거나 wheel chair를 밀어주는 행위, 활력측정의 중요성과 정상수치 등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되었다. 골절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 또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신체상의 불만이나 정상이었을 상태의 동경, 장기 입원으로 가족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며, 보험이나 산재처리에 대한 불만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 후 경청하였다.

약을 돌리거나 투약 처치시 혹은 vital sign 측정시 환자들과 의도적인 대화를 통하여 운동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후 운동을 하도록 권유하며 환자의 기분이나 간호 요구도를 관찰하였다. 개인적인 상담을 원

할 때는 기꺼이 응하여 필요한 건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하였다. 이와 같은 지지간호는 10~20분이 소요되도록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 하였다.

우울 : 기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우울로 얼굴 표정, 대화량, 일상의 활동량(activity)을 포함하였다. 간호순회시 10분~20분의 관찰을 통하여 3점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3점, 최고 9점이 되도록 하였다.

치료지시 이행정도 : 경도투약, 운동량(exercise), 활력증상 측정시의 협조여부를 포함하였다. 이는 간호순회시 10분~20분 정도 관찰을 통하여 3점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3점, 최고 9점이 되도록 하였다.

IV. 사례 소개

<사례 1>

연 령 : 78세

성 별 : 남자

진 단 명 : 교통사고로 인한 Fx. of distal tibia Rt.

치료과정 : 96년 5월 11일 입원하여 Rt. short leg cast 한 상태로 지냄. 고령으로 수술이 불가능 함.

가족관계 : 16년 차이가 나는 부인이 있으며 아들이 셋 있다. 부인이 간병하고 있었으나 자주 다투고 가버렸으며 가끔 다녀감. 아들도 입원당시에 다녀간 후 자주 오지 않음. cast후 체중부하가 되지 않도록 여러차례 교육하였으나 막무간으로 wheel chair를 타지 않고 걸어다님. 항상 부인에게 불만이 많으며 고집이 셈. 가족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사례 2>

연 령 : 50세

성 별 : 남자

진 단 명 : Fx. of open communitid tibia Rt.

Fx. of comm tibia & fibula Lt.

Fx. of zygomatic

치료과정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95년 11월 14일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함. 수술 3차례 받은 후 cast하고 지내다가 석고봉대를 푼 후 현재는 지팡이를 이용한 운동중임. 10개월 동안의 장기 입원으로 집에 대한 동경과 회사에 대한 걱정이 많음. 양 다리의 골절로 골프나 등산 등 자신의 취미 생활에의 장애, 퇴원 후 사회 적응에 대한 두려움

에 대해 상담을 자주 원함. 병원생활에 모범적이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우울해함.

교육정도 및 직업 : 무역 회사 사장으로 대학원 재학 중으로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음. 직업상 외국 생활을 장기간하여 외국어를 조금 구사 할 수 있음. 대학원 4학년으로 학교생활의 아쉬움에 우울해함.

가족관계 : 부인과 아들이 하나 있음. 성의껏 환자의 간병에 임하고 있음.

<사례 3>

연 령 : 48세

성 별 : 남자

진 단 명 : Fx. open tibia & fibula Rt.

질병과정 :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의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겨 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뼈이식(bone graft) 수술과 피부이식(skin graft)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은 완치 되지 않은 상태임. 96년 5월 17일 입원함.

가족관계 : 부인과 딸 셋, 아들 하나가 있음. 치료에는 협조적이었으나 여러차례 수술과 장기입원으로 짜증을 자주 내게 되었음. 4형제의 장남으로서 우애가 좋음. 성격은 조용한 편임. 부인과 자식들 모두 조용한 성격임.

교육정도 및 직업 : 학력은 고졸이며 회사에 다녔다고 하나 장기간 입원으로 지금은 실직 상태임.

환자반응 : 다친 다리의 회복의 불확실성과 장남과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울해함. 말없이 침대에서 거의 지냄.

<사례 4>

연 령 : 38세

성 별 : 남자

진 단 명 : Fx. of patella Lt.

Fx. of open proximal tibia Lt.

질병과정 : 공사장에게 트럭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짐. 96년 4월 14일 입원함. 진단 받고 수술 후의 재활단계로 지팡이와 목발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음.

가족관계 : 부인과 아들, 딸이 있음. 부인은 가정수입 때문에 남편을 대신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음. 종교는 불교이며 학력은 고졸임.

환자반응 : 원래 성격은 적극적이며 밝은 편이나 사고

후 우울해하며 불안해하고 감정 표현은 잘 하지 않고 혼자 바구니를 만들거나 산책을 함. 현재 재활의 노력을 보이거나 사고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부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직장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항상 미안해함. 가장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사례 5>

연 령 : 62세

성 별 : 남자

진 단 명 : Fx. femer shaft Rt.

Fx. patella Rt.

Fx. open tibia & fibula Rt.

질병과정 : 극장에서 근무 하던 사람으로 사장 차가 뒤로 후진 하는 것을 안내 하다가, 차에 치어 96년 3월 10일 입원하였음. 진단 받고 4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외부 고정장치를 하고 있으며 wheel chair를 이용하여 일상 생활을 하고 있음.

교육정도 및 직업 : 학력은 국졸이며 사고 전에는 직업이 있었고 경제력도 있었음.

가족관계 : 부인과 사별하였으며 아들하나와 딸 하나가 있음. 경제적으로는 중 정도이나 사정으로 가족이 간병을 하지않고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혼자도 일상 생활이 가능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들은 주말에 자주 오나 며느리나 딸은 자주 오지 않음.

환자반응 : 항상 혼자 지내며 운동도 거의 않고 침대에 앉아 수공예품을 만들기를 좋아함. 세안과 화장실 가는 것 이외에는 운동을 하지 않음. 자식들에 대해서 서운한점이 많으나 자식들에게 표현 안함. 우울해 보이며 거의 말없이 지냄. 주사나 약을 싫어하며 거절할 때가 있음. 여러 차례 수술로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며 삶의 의욕이 저하되어 있다. 원래 성격은 차분한 성격이나 사고 후 가족들의 무관심과 신체의 변화에 우울해 하며 지냄. 종교는 없으며 대화 없이 혼자 있기를 좋아함.

V. 연구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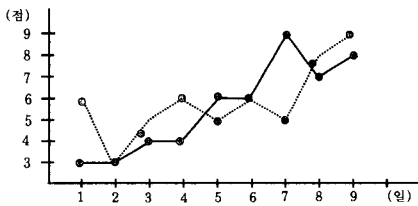
각 사례별로 기초 관찰시기 3일, 지지간호의 중재시기 3일, 제 2기초 관찰시기 3일간의 우울과 치료지시 이행정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관찰일 9일중 3일은 아무런 중재없는 기초선이고

3일은 지지간호가 실시되었고 3일은 제 2기초선으로 관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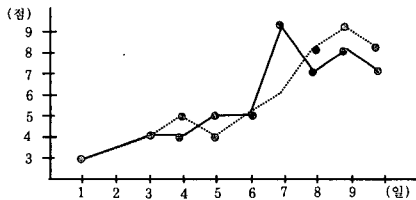
사례1,2,3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지적 중재후에 우울과 치료지시 이행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사례4와 5에서는 중재후의 반응이 중재동안의 반응보다 감소되었으며, 중재전보다는 약간 증가된 변화를 보이거나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재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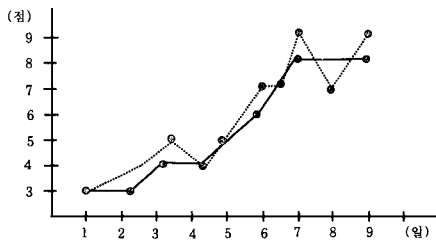
— 우울
... 치료지시 이행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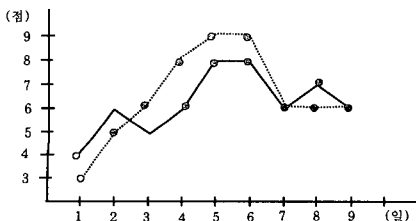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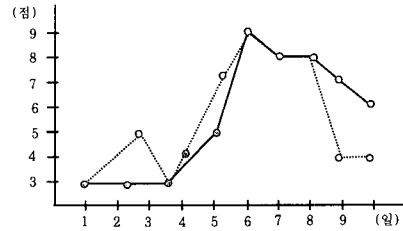
[사례 3]



[사례 4]



[사례 5]



기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우울은 지지간호 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표정은 대체적으로 밝아졌으며 대화량도 많아졌으며, 일상의 활동량은 보다 적극적으로 되었다. 치료지시 이행정도는 협조적 자발적으로 변화하였다. 경구약 복용시 약을 버리거나 모아두거나, 운동하다가 투약시간을 잊어버리거나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일, 항생제 주사를 장시간 맞게되면 둔부의 통증으로 혹은 귀찮아하며 거절을 하는 일 등이 감소하였다. 지지 간호를 통해 투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약의 효과와 적응증을 교육한 후 약을 잘 복용하고 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투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운동량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작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중장년층으로 운동량이 적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아픈 사지를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며 귀찮아 한다. 그러나 지지간호를 통해 운동의 중요성과 근육 강화 운동, ROM exercise, 목발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운동하는 것을 격려하며 함께 운동을 하거나 wheel chair를 밀어주어 운동을 권장 하였다. 그후 대상자들이 운동을 혼자서도 잘하며 지지간호 시행전 보다 운동량도 증가 하였다.

골절환자들은 합병증이나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Vital sign은 평균적으로 정상을 유지한다. 활력징후 측정을 귀찮아하며 측정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으로 임상의 간호사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 지지간호의 시행시에 활력측정의 중요성과 정상수치 등에 관한 설명을 하므로서 활력측정시 협조적이며 자신의 수치를 궁금해하고 능동적, 자발적으로 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지간호는 대상자의 표정을 밝게

하고, 대화량을 많게 하여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일상의 활동량을 증가시켜 우울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고 약을 잘 복용하며,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활력 측정을 함에 있어 여러가지 정보를 알게함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재후에 환자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례와 감소하는 사례간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례 1,2,3은 사례 4,5와 비교할때 비교적 가족의 관심이 높고 전반적으로 가족간의 관계가 양호한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VI. 요약

간호순회시 골절환자 5명에 대하여 지지간호 중재를 실시하고 실시 전, 중, 후를 관찰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은 96년 8월 12일부터 8월 20일 까지였으며 서울 시내 모 대학 정형외과 병동의 입원환자 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지지간호는 간호순회, 경구투약이나 주사시에 3차례씩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환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청과 정서적 지지를 주고 건강에 관한 정보와 보살핌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투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설명, 약의 효과에 관한 설명, 운동의 중요성, 근육 강화 운동, ROM exercise, 목발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운동하는 것을 격려하며 함께 운동을 하거나 wheel chair를 밀어주는 행위, 활력측정의 중요성과 정상수치 등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되었다.

환자의 기분을 나타내는 우울은 얼굴 표정은 밝아지고 대화량과 일상의 활동량은 증가하고 치료지시 이행정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지 간호를 중재 한 3일이 그래프상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 간호후 지속적인 효과는 알 수가 없었으나 지지간호 시행 전과후를 비교해보면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지간호가 골절환자에게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지간호의 중재후에 환자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례와 감소하는 사례간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정아(1989). 지지 간호가 군 요통환자의 우울, 기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자(1985). 지지 간호가 입원 환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숙자(1992). 지지적 간호 행위가 혈액 투석 환자의 대처 방식에 따라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추자(1993). 사회적 지지모임이 뇌·척수 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희(1983). 지지적 간호 중재가 가족 지지행위나 환자 역할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왕임순(1985). 지지적 간호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자각과 애착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 김영혜(1995). 지지적 간호 중재가 수유행위와 계획적 행위이론의 변인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추자(1985). 지지적 집단 간호가 하지 골절 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명옥(1985). 외상 환자의 신체상과 자기 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옥외 4인(1982). 만성 및 재활 간호. 서울: 수문사.